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11. 25.(수) 19:30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부채 부담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보도내용>

□ 2026.11.25. 국민일보는 '한국 나라 빚 6592조 사상 최대 … 1년 새 217조원 증가' 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가 올해 1분기말 6592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경우 한국 경제의 이자 부담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일반적으로 주요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증가율, yoy, %, 자국통화 기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1Q
한국	총부채	**10.4**	**5.5**	**3.4**	**3.7**	**4.5**	**3.4**
	명목 GDP	**8.0**	**4.7**	**3.4**	**6.5**	**4.4**	**17.1**
캐나다	총부채	6.3	1.4	5.9	5.8	5.3	4.5
	명목 GDP	14.2	12.9	3.5	4.8	4.4	3.1
호주	총부채	5.3	3.9	4.9	6.1	6.5	5.9
	명목 GDP	11.4	12.8	5.6	3.6	4.8	5.3
미국	총부채	5.3	0.6	5.7	3.8	6.0	5.8
	명목 GDP	11.1	9.7	6.8	5.6	5.0	5.6
독일	총부채	4.8	0.6	2.2	1.5	2.8	3.4
	명목 GDP	6.8	8.0	6.1	3.1	3.3	3.5

* 미국·캐나다·호주·독일 등 경제 총부채 규모 증가세 지속하며 역대 최대치 지속 경신 중

□ **국내총생산**(GDP)과 가계·기업의 **수익·소득** 등 **상환여력**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의 **부채 부담**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 국가총부채 비율(GDP 대비, %): ('25.2Q)248.2 (3Q)247.8 (4Q)244.6 ('26.1Q)236.7 (2Q)226.0<4분기 연속 하락>

○ **정부부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적극재정**에 따른 **성장률 반등**, **세입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지며 **4분기 연속**으로 **부채비율**이 **하락**중입니다.

*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 ('25.2Q) 47.8 (3Q) 47.7 (4Q) 45.7 ('26.1Q) 45.0 (2Q) 42.3<4분기 연속 하락>

○ 기업의 **경영지표***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가계·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지속 **하락** 중입니다.

* 기업 자기자본순이익률(%): ('23)5.2 → ('25)6.4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23)120.8 → ('25)111.6
기업 이자보상비율(%): ('23)191.1 ('24)244.1 ('25)292.7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3)144.8 ('24)140.1 ('25)138.7 ('26.2Q)127.8^{e}

***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 ('25.2Q) 89.7 (3Q) 89.3 (4Q) 88.6 ('26.1Q) 85.3 (2Q) 81.1<4분기 연속 하락>
기업부채 비율(GDP 대비, %): ('25.2Q)110.8 (3Q)110.8 (4Q)110.3 ('26.1Q)106.5 (2Q)102.5<3분기 연속 하락>

□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엄격한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혁신** 등을 통해 '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107.2조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실시

○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고려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취약한 기업·가계**의 **금리부담 완화**, **상환능력 개선** 등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심화·가속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8.28일 발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2740)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시훈 (044-215-2780)
		담당자	사무관 이병준 (junnylee94@korea.kr)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지속가능재정과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4-1830)
		담당자	사무관 전찬익 (jky820@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